

충청남도 도청이전 예정지로 홍성군 홍북면·예산군 삽교읍 일원 확정



충청남도 도청이전 평가단(평가단장 영남대학교 이성근)은 지난 2006년 2월 9일(목)~2006년 2월 12일(일)까지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한국토지공사 국토도시연구원에서 충청남도 도청이전 예정지를 확정하였다.

시 군추천 16명, 도의회 추천 16명, 14개 학회추천 전문가 38명 중 66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6개 평가대상지를 현장 답사를 한 후, 충청남도 도청이전추진 지원단과 충남발전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평가 작업을 수행하였다.

평가결과, 홍성군 홍북면·예산군 삽교읍 일원이 도청 예정지로 선정되었다. 충남도는 우선 내년 5월까지 사업구역을 결정하고 2008년까지 개발계획을 세운 뒤 2010년 공사에 착수해 2013년부터 기관과 주민을 이주시킬 계획이다.

한편, 2월 24일 개최된 '충남도의회 도청이전특별위원회'와 28일 개최된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으로 하는 "충청남도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신성장중심권 개발과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워크숍 개최

충청남도가 후원하고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신성장중심권 개발과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에 관한 워크숍이 지난 3월 17일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대강당에서 관련 전문가, 충남도와 시·군 관계관, 충남도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조판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주변지역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를 통해 ①행정도시 건설방향, ②행정도시 광역도시계획 추진방안, ③행정도시 주변지역 발전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어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서철모 충청남도 정책기획관은 「환경해권 시대를 선도할 新도청 건설과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①도청이전의 정책적 의미, ②도청이전이 충남의 경제 및 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 ③도청이전에 따른 향후과제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정연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실장은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방향」이란 주제를 가지고 ①지역의 여건과 전망, ②수정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③부문별 계획, ④추진체계 및 향후일정 등을 대해 발표하였다.

이 같은 주제발표에 대해 정순오 한남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혜천 목원대 교수, 육동일 충남대 교수, 이정진 공주대 교수, 이상호 한밭대 교수, 이원섭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등 총 6명의 토론자들이 열린 토론이 이어졌다.

충청남도는 지난 2월 12일 도청이전 후보지를 확정하였고, 작년 11월부터 충남발전연구원과 함께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향후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충남지역혁신협의회 전체협의회 개최

道 '지역혁신발전 시행계획안' 마련 5729억원 투입·총 62개사업 추진



충남지역혁신협의회는 지난 2월 2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심대평 도지사,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혁신협의회 전체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2006년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및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 시행계획 등을 심의 의결했다.

다이나믹한 혁신체제 구축을 통한 동북아 경제권의 신 성장산업 중심지 건설을 위해 올해 총 5,729억원(국비 1,635억 2,100만원, 지방비 1,657억 2,800만원, 민자 2,436억 5,100만원)의 예산을 지역혁신 사업에 투입하는 등 지역혁신발전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도는 전자·정보기기, 자동차·부품, 첨단 문화, 농·축산바이오 등 4대 전략산업을 축으로 아산 둔포 전자·정보집적화단지 조성, 자동차 부품R&D집적화 센터 건립, 충남 디지털문화 산업클러스터 구축, 축산바이오테크노파크 조성 등 27개 지역 전략산업 추진에 4,117억 2,000만원을 배정했다.

특히 공주 유구 자카드 섬유산업, 보령 머드산업, 아산 맑은쌀, 명품화 사업, 서산 육쪽마늘 일류화 사업, 계룡 세계군문화 엑스포 개최, 연기 농촌 테마관광, 청양 칠갑산 그린투어, 홍성 광천토굴 새우



젓 산업, 예산 사과 가공·유통산업, 당진 해나루쌀 육성사업 등 10대 지역연고 산업에 382억 1,300만원을 투입키로 했다.

그 밖에 지방대학육성 및 지역인력양성 4개 사업을 위해 593억 1,800만원을, 지역과학기술 혁신역량강화 7개 사업에 152억 2,000만원, 지역혁신기반 구축 7개 사업에 415억 7,600만원과 기타 혁신주체 능력제고 및 네트워크 강화사업 등에 65억 900만원을 배정했다.

금번 심의 결과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되어 충청남도의 혁신의 근간을 형성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열린충남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열린충남은
충남 발전에 관한 연구논문, 정책제언 등
참신한 내용과 정보를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www.cdi.re.kr

충남의 문화유산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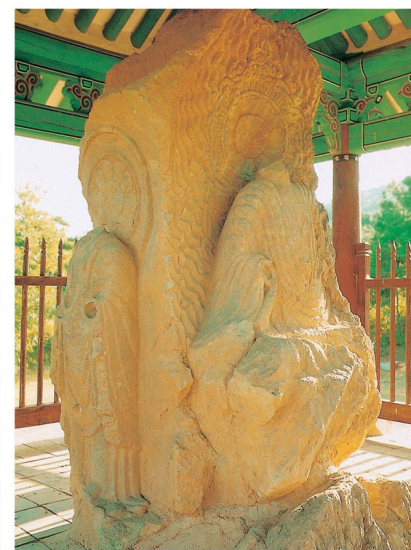
홍성 신경리 마애석불



충남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에 있는 마애석불(보물 제355호)로 불상 옆면에 새겨진 조성기에 따르면 통일신라 후기인 소성왕 1년(799년) 4월에 조성된 작품이다. 화강암의 전면을 감형으로 조각한 여래입상으로 머리는 소발이며 육계가 큼직하다. 길고 풍만한 얼굴에 작은 눈·코·입 등 매우 온화한 모습의 불두(佛頭)를 하고 있다. 귀는 어깨까지 내려오고 목은 거의 없으며 삼도(三道)는 가슴에 표현되었다. 이 불상은 얼굴에 극적인 효과를 부여하고 신체는 얼굴에 비해서 점차 약식화되는 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불상은 작가(원조법사) 발원자 등도 기재돼 있어 통일신라 시대 불상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충남의 문화유산 ④

예산 화전리 사면석불



화전리 사면석불은 자연석의 네면에 불상을 조각한 것으로 백제 사면불로는 유일하다(보물 제794호). 사면불이란 일명 사방불이라고도 하는데, 동·서·남·북의 방위에 따라 사방 정토에 군림하는 신앙의 대상으로 약사불, 아미타불, 석가불, 미륵불을 말한다. 이 불상의 특징은 소발인데 불두에 비해 육계가 작고 광배에 조각된 불꽃무늬나 연꽃무늬는 백제 특유의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법의는 통견으로 옷주름이 매우 깊으며 가슴 아래의 옷주름은 U자형으로 겹쳐있다. 발목 끝까지 내려온 옷자락은 O형으로 되어 있다. 이 불상은 서산과 태안의 마애불과 비교되는 우수한 작품으로 당시의 불교사와 미술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